우암학원 창학 7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동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518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5월 24일 2025년 6월 19일 목요일

광주신세계 복합쇼핑몰 공공부문 크게 후퇴

‘그레이트 시티 광천’ 계획서 제출…호텔 객실 줄고 기여금 축소
광주시 “공연장 등 공공성 최대한 확보”…협상 과정서 갈등 클 듯

광주신세계가 광천터미널 일대에 추진하기로 한 복합쇼핑몰 ‘그레이트 시티 광천’ 사업계획서를 18일 광주시에 제출<6월 18일자 광주일보 1면>했다.

신세계가 주거시설 면적 확대 여부를 두고 광주시와 반년 넘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사업 좌초위기 우려까지 제기됐으나 일단 사업 절차는 재개됐다.

하지만 신세계 측이 우선협상 사업대상자 선정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보다 공공성 부문에서 크게 후퇴해 광주시와 차후 협상 과정에 난항에 예상된다.

18일 광주시와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이날 광천터미널 일대에 추진하기로 한 복합쇼핑몰·특급호텔 건립을 구체화한 사업제안서 ‘그레이트 시티 광천’이 광주시에 제출됐다.

광주시는 올안으로 신세계와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착공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600여 쪽에 달하는 사업계획서에는 터미널, 백화점, 문화·상업·업무·숙박(호텔)·교육·의료·웬니스복합·주거복합시설 조성 등이 담겼다.

광주신세계는 광주시와 갈등을 빚어온 주거기설 면적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16만42378㎡를 유지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10만 1150㎡로 변화가 없다.

문제는 건축 연면적이 26만 7679㎡(당초 108만 2354㎡→81만4675㎡, 터미널·복합용지 제외) 줄었다는 데 있다.

백화점과 주거시설, 근린생활 시설을 제외하고 당초 계획서보다 대부분 시설 면적이 감소했다. 연면적(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이 줄어든 주요시설은 터미널 부지, 문화·숙박(호텔), 업무시설 등이다. 신세계측의 업무시설을 줄였다는 설명을 감안하더라도 수익성을 강조하고 공공성을 축소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 인프라인 터미널 부지는 13만 7440㎡를 개축해 지하시설로 배치하고 76만 5345㎡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서를 내놨지만, 이번 제안서에는 47만9941㎡로 줄였다.

신세계 측에서 당초 5성급 특급호텔로 조성하기로 한 숙박시설(호텔)부지의 경우 12만5616㎡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이번 제안서에는 4분의 1 수준(3만3058㎡)으로 축소했다.

당초 업무시설인 오피스 동과 특급호텔인 숙박시설 동을 각각 건립하기로 했지만, 이 두개 시설을 합해 하나의 동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 건물의 5~6층은 문화시설이고 7층부터 22층까지 오피스동 23층부터 35층까지 호텔로 설계됐다.

객실만 보더라도 당초 300실(호텔250실, 임대50실)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200실로 감축했다. 여러 시설이 하나의 건물에 들어가 사실상 특급호텔로 볼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당초 공공기여금도 910억여원에서 828억원으로 줄었다.

신세계 관계자는 ”기존 계획서를 기반으로 제안서를 작성했다”면서 “광주시와 성실히 협상을 진행해 광주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신세계 제안은 추후 광주시와 협상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변경 될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공공기여금도 추가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할 방침이다.

과거 어등산 스타필드의 경우 제안서의 30% 이상이 변경 됐고, 더현대 광주의 경우에도 공공기여금을 6000억원까지 확대시켰다는 것이다.

시와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시는 “기존 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공연장 신설 등을 추가로 요청했지만 이번 제안서에는 빠졌다”며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신세계 측에서는 주거시설 면적 확대를 요구하는 등 수익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낙후된 광주 고속버스터미널은 백화점·특급호텔·문화시설 등이 복합화된 문화·관광자원인 그레이트 시티 광천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사전협상을 끝내고 내년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신속·공정·투명 원칙에 입각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전남 시·군 보건소 소아예방접종 기피 ▶6면
KIA 고졸 루키 이호민 화려한 데뷔 ▶18면
팔도 핫플 - 옛 장흥교도소 ‘빠삐용 ZIP’ ▶22면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정상회담…“셔틀외교 재개·긴밀 협력”

이 대통령 G7 외교 마치고 귀국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현지시간) 캐내내스키스 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무대에서 이틀간 펼친 정상외교 데뷔전도 마무리했다. 〈관련기사 3면〉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양 정상은 북한 문제를 포함해 지역의 여러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 한일 간 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유사한 입장에 있는 양국이 보다 긴밀히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셔틀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당국 간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당국 간 보다 활발히 대화를 이어 나가기로 하고, 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국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G7 정상회의 무대는 취임한 지 12일 만에 이뤄진 이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으로, 이 대통령이 천명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 오른 자리였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정상 및 이 대통령이 초청받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국을 떠나 국제 외교에 시동을 걸었고, 주요국 정상들과 친분을 쌓고 국제 정세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미 정상 간의 만남은 당초 이날 예정됐었지만,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무력 충돌 사안에 따라 G7 참석 일정을 중단하고 급거 귀국한 데 따라 무산됐다. 이에 첫 한미정상 대면 외교는 과제로 남았고, 대통령실은 ’가장 근접한 계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 성과로 가장 먼저 국제 사회에 한국의 민주주의 및 정상외교가 복원됐음을 알린 점을 꼽았다. 또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첫걸음을 뗐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모든 양자 회담에서 예외 없이 무역, 투자, 통상, 공급망, 에너지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엘리체
싸게 팝니다
회사보유분 특별분양
함평 엘리체 시그니처
6월 계약자에 한함
즉시 입주
지하 주차장
태양광 시스템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무상 제공
단일 84㎡A · B 총 232세대
시행 대선이앤씨(유) 시공 (주)서진건설
문의 061) 830-9304